

레바논의 Hariri 총리 사임

- 레바논의 Rafiq Hariri 총리가 15일 사임했다고 레바논 대통령실이 발표하였음.
-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Hariri 총리가 Emile Lahoud 대통령과 약 10분간 면담하는 자리에서 사임의사를 밝혔으며, Lahoud 대통령은 그의 사임을 수용하고 새 내각이 구성될 때까지 관리자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하였음.
 - o 성명은 총리의 사임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며, 대통령이 새 내각의 구성을 위한 협의를 16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레바논 헌법에 따라 내각은 총리의 사임과 더불어 총사퇴하게 됨.
- 지난 1990년 15년간의 내전을 종결하면서 체결된 레바논의 권력분할 협정에 따라, 총리직은 수니파 이슬람교도가, 대통령직은 마론태 기독교도¹⁾가 맡고 있음. 대통령은 의회의 의견을 타진한 후 총리를 임명하고, 총리는 각 정파와 협의해 내각을 구성하게 됨.

□ 미국-시리아간 긴장관계가 사임의 배경에 작용한 듯

-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1992년 총리에 임명된 이후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2년간을 제외한 현재까지 9년간 총리로 재임하면서 내전의 황폐에서 레바논을 재건시킨 공로를 인정받은 Hariri 총리가 계속 총리직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해 왔음. 정치 분석가들은 Hariri 총리가 다시 새 정부 구성 요청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1) Maronite Christian. 동방 정교회의 의식을 채용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일파로, 주로 레바논에 거주함.

- 현재의 레바논 내각은 2000년 10월 구성되었으며, 몇 개월 전부터 내각 교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이라크전 등으로 인해 그 동안 연기된 것으로 보임.
- Hariri 총리의 사임은 미국 정부가 시리아에 대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지원해 왔으며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등의 강도 높은 비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그 배경이 주목됨.
 - Hariri 총리의 사임이 현재 미국-시리아간 긴장관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총리실 관계자들은 사임 발표와 관련하여 일절 언급을 피하고 있음.
- 레바논은 시리아의 정치적 후원을 받고 있는 Lahoud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그 동안 대중에게 인기가 없는 재정개혁 정책을 자주 추진해온 Hariri 총리를 비난하면서 최근 수개월 동안 정치적 논쟁에 휩싸여 왔음.
 - Hariri 총리는 그 동안 300억 달러에 이르는 레바논의 공적채무를 축소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개혁과 국영기업 민영화를 추진해 왔으나, 이 과정에서 긴축적 재정정책의 실시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외채상환으로 재정수입이 감소하여 반대파들의 비난을 받아 왔음.

전문연구원 오경일 (☎3779-6646)
E-mail : oki1122@koreaexim.go.kr